



아이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떼헤(To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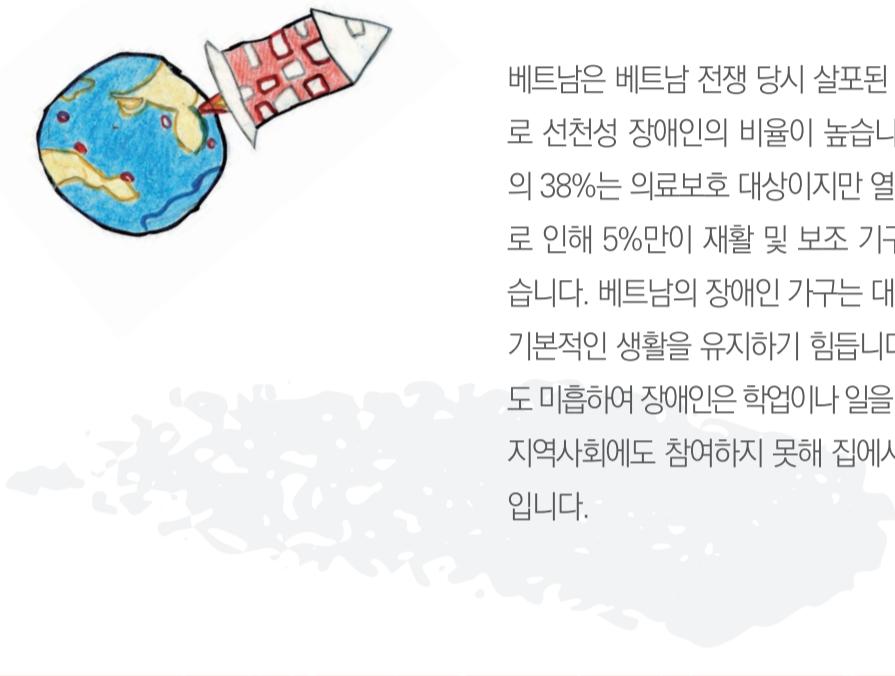
함께일하는재단은 취약계층 아동의 그림을 모티브로 생활잡화를 만드는 떼헤(Toh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떼헤는 수익금으로 예술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아동과 빈곤가정 아동에게 무상 미술교육을 제공합니다. 미술교사 양성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아동이 판타임 디자이너로 고용되기도 했으며 손가락 장애가 있는 지양(Giang)은 9년 간 교육에 참여한 이후 정식 미술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떼헤와 *SDGs의 연관성



*SDGs: 지속 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해 UN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17가지 목표

가슴 아픈 베트남 전쟁 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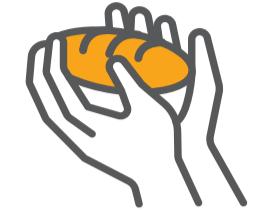


베트남 장애인 인구
620만 명



장애인 가구 빈곤율

33%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당시 살포된 고엽제의 영향으로 선천성 장애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장애인 인구의 38%는 의료보호 대상이지만 열악한 의료서비스로 인해 5%만이 재활 및 보조 기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장애인 가구는 대부분 빈곤층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사회적 인프라도 미흡하여 장애인은 학업이나 일을 할 수 없고, 결국 지역사회에도 참여하지 못해 집에서만 머무는 상황입니다.



©The Advocacy Project/flickr



장애아동 인구

약 133만 명



이 중 미취학 상태

2/3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베트남 아이들은 부모와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특수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인아동이 동일한 교과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아동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열악한 가정형편과 물리적 장벽 등이 더해져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를 창의예술로 뛰어넘다



미술 교육 진행
1,124 회



교육 참여 아동
2,124 명



아동에게 저작권료 지급
25,926 달러



떼헤에서 진행하는 창의예술교육은 장애아동이 감정조절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기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애인 실업률이 비장애인보다 3배 높은 베트남 상황을 고려해 아동에게 수익의 일부를 저작권료로 지급함으로써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든 환경에서도 그림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참 고마운 후원자님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시는 후원자님 덕분에, 함께 일하는 재단은 모든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둥근 달처럼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함께일하는 재단에서는 소식지를 우편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어 소식지를 받아보지 못하는 후원자님께서는 함께일하는 재단으로 전화 주셔서 변경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후원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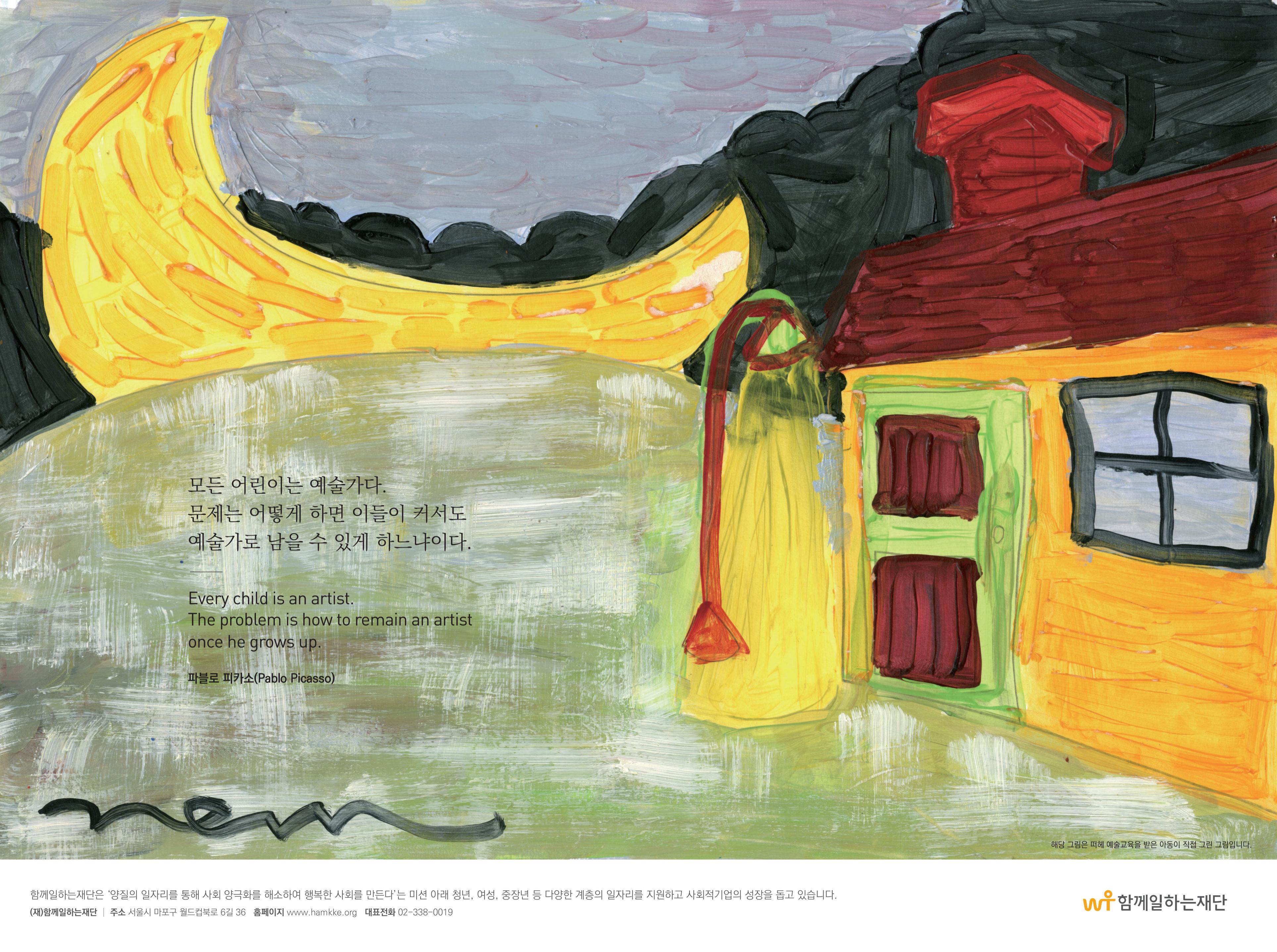
☎ 02-330-0711
☞ www.hamkke.org



해외
취약계층
지원

국내
취약계층
지원

일반
비자정
후원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커서도
예술가로 남을 수 있게 하느냐이다.

Every child is an artist.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해당 그림은 떠해 예술교육을 받은 아동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